



**가족사랑요양병원, '사랑의 집 짓기' 후원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일 가족사랑요양병원(이사장 박진만)이 지역 내 다자녀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김제시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가 협업해 추진 중인 '개·소·금(깨끗하고 소중한 보금자리) 아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다자녀가정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쓰일 예정이다.

박진만 이사장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9명의 자녀와 조부까지 총 12명의 가족이 모여 사는 가정의 사연을 듣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집 짓기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거 취약 아동 가정에 깨끗하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선물 해줄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사랑요양병원은 이번 기부 외에도 지난 7월 치매안심센터에 구충제를 후원하며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내 청년들을 위한 힘찬 동행**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 전북대 RIS미래수송기사업단과 협약**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는 전북대학교 RIS미래수송기사업단과 19일 전북대학교 전주 캠퍼스 건지원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청년 정주 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소속 기관인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를 통해 지역 맞춤형 청년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미래수송기 분야 전북지역 여성 기업들의 일자리 증진을 위한 수요조사와 교육 협업 △창년 의제 발굴 및 정주 환경 확산 △지역 맞춤형 청년 교육 및 역량 강화 △협력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및 활용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청년 인재 양성, 정주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북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이공계열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공계 여성 인재들이 더욱 성장하고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도에 여성가족부 지정으로 설립되어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으로 성주류화 제도 지원,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지역 모니터링 사업, 지역 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북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이공계열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공계 여성 인재들이 더욱 성장하고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도에 여성가족부 지정으로 설립되어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으로 성주류화 제도 지원,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지역 모니터링 사업, 지역 특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사랑의장학회, 도내 학생 1098명에 장학금 지급**

(재)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는 19일 2층 강당에서 2024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업우수 장학생, 꿈기움 장학생, 재능우수 장학생 등 3개 분야에서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생 1,098명을 선발해 총 5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는 1982년 사랑의 장학회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지급액이며, 지난해 대비 2.6배 증가한 규모다.

이날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학생 83명과 학부모, 인솔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정기 부교육감은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지속적인 장학사업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日 이시카와현 금박공예 문화체험 진행**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16일~17일 양일간 전북특별자치도민 대상 '일본 이시카와현 금박공예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과 2001년부터 우호협력 결연을 맺어온 일본 이시카와현과 협력하여 일본 전통예술의 중심지이자 일본 금박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자와 산 금박'에 대한 소개와 금박공예 장인인 쓰다 아사키(津田朝希)를 초빙해 접시·엽서를 이용한 금박공예 체험을 진행했다.

16일에는 진흥원에서 도민 20명 대상 접시를 이용한 금박공예 문화체험을 진행했으며, 17일에는 전주세계소리축제와 더불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어린이 소리 축제에서 도민 120명 대상 접시를 이용한 수시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얇은 금박을 붙여 자신만의 접시·엽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8월 17일 행사에는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참여한 큰 호응을 얻었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이시카와현의 명물인 금박



문화 체험을 통해 전북도민 대상 글로벌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에 기쁘다"며, "앞으로 이시카와현과 교류 분야 다양화 등 더욱 강화된 교류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남원 향교동, 독거노인 반찬 배달 서비스 시행**

남원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독거노인들을 위한 특별한 반찬 배달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아이리스협(자연드림)과 업무협약으로 매달 10가구에 반찬을 지원해 오던 중, 여름철을 맞이해 삼계탕, 김치, 라면 등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음식을 준비해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하였다.

향교동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지속적으로 챙기기 위해 동장이 직접 매일 1가구씩 방문하는 소동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가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하는 등 이번 여름철 반찬 배달 서비스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혜정 향교동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명존중 교육**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6일, 육군 7733부대 정병 5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센터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군부대 생명존중교육은 의술이 제한적인 군 장병의 특성을 고려해 강사가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 단체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정서적 불안정을 겪기 쉬운 장병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북돋우기 위해 "나는 특별하다"라는 주제로 △생명존중 개념 알기 △극한상황 대처법 △생활 속 위기예방 실천법 △전문기관 이용안내 등 자살 예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한 장병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을 고민하는 동료가 보내는 경고 신호와 대처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센터 (063-633-1977)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 '어르신 지혜나눔학당' 진행**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에서는 지난 1일부터 2주에 걸쳐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장수군 지역 아동들이 함께 '어르신 지혜나눔학당'을 진행했다.

어르신 지혜나눔학당은 당구, 탁구, 난타, 원예활동 등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여 익힌 재능을 지역의 아동들에게 나누고 세대간 소통하는 활동으로 8월 2주간 지역의 아이들을 복지관에 초대하여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고 세대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군의 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98명의 아동들과 74명의 어르신들이 당구, 탁구, 원예, VR체험 등으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은 "탁구에 자질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배우면 장수에서 신유빈 같은 탁구 선수도 나오겠어요.", "당구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배우면 잘하겠어요."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모처럼 웃네요.", "지역의 선배인 우리가 후배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야지요" 라고 말해주었다.



참여한 아이들은 "초록나눔 봉사단 어르신들은 평균 나이가 75세이신데도 새롭게 도전해서서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대단하세요.", "장수군은 인구도 적고 어르신 수도 많다고 하는데 어르신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 감사드리고, 길에서 보면 인사드릴게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시, 도로명주소 SNS '초성퀴즈 이벤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도로명주소 SNS '초성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2024년 신규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SNS '초성퀴즈 이벤트' 참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의 생산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이벤트는 김제시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내용을 QR코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배달 앱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다음 달 4일에 발표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SNS 초성퀴즈 이벤트를 통해 전북권 4대도시로 응비하는 김제의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가족센터, 바리스타 자격 취득과정 종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에서는 지난 7월 25일까지 직업훈련 '바리스타 자격 취득과정'을 진행했고, 참여자 전원이 취득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바리스타 자격 취득과정'은 각각 1기와 2기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12회기씩 총 24회기를 진행했다. 1기는 안성 사랑방에서 진행했으며 2기는 무주 상상반디순 상상 카페에서 진행했다. 직업훈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11명 모두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개개인의 역량 강화 및 자신감 상승으로 높은 만족도를 도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 치매안심가맹점 5곳 신규 지정**

정읍시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약국, 편의점, 식당 등 5곳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16일 이를 기념하는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직원들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아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개인사업점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 가맹점은 로컬히밍약국, 지에스25 정읍 한국병원점, 금강산유황오리, 꼬마포래, 부영마트 등 5곳이다. 이로써 정읍에는 총 37개의 치매안심가맹점이 운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추석 맞아 식품업소 위생 실태점검**

정읍시보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지역 내 식품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방앗간, 기름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84곳, 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 23곳, 일반음식점 6곳,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2곳 등 총 1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식중독 예방 준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소독기록 등 제품 진열·판매 여부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최근 살모넬라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달걀의 보관·표시 기준 적절성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소분·판매 여부와 부당한 광고행위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식품위생법 위반·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회수·폐기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과 추석 명절을 대비해 집중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사**

남원시청 ◇4급 서기관(일반임기제) ▲김재연 자치행정국장